



# G20 정상회의에서의 유럽연합 (EU)

##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통한 위기 해결, 더 나은 재건 달성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

2020년 11월 20일  
#G20 #G20saudiarabia

### G20 화상 정상회의를 위한 EU의 우선과제 (2020년 11월 21-22일)

G20의 회원으로서 EU는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. EU는 생명을 보호하고,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, 더 나은 재건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용력 있는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.

## 1 코로나19 퇴치

- 백신 및 치료법 연구개발과 배포에 대한 투자
- 전세계 대상 백신의 저렴한 비용 및 균등한 접근성 보장
- 코로나19 대응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(ACT-A) 및 글로벌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(COVAX facility)를 통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
- 세계보건기구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 강화를 모색하고, 공동으로 전세계 유행병 대비태세 강화



### 160억 유로 :

코로나19 치료제, 진단검사 및 백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약속 받은 기부금



## 2 경제 지원

- 코로나19로 인한 경제·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회복이 확실하게 자리잡을 때까지 **경제적 지원 조치** 유지
- 견실한 사회 보장 제도에 입각한 **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회복** 추진
- G20 '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' 이행 및 업데이트
- **더 나은 재건 -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** 이행을 통해 친환경적이고, 포용력·회복력 있으며, 디지털 주도의 성장에 기반한 경제 회복



**1.8조 유로 :**

EU의 회복기금 (NextGenerationEU)을 포함해 경제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EU 예산 규모



## 3 개도국 및 저소득국 지원

- **G20-아프리카 파트너십** 및 아프리카협약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지속
- 최소한 2021년 중반까지 G20 **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(DSSI)** 연장 지원
- 채무 조정 강화가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저소득국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기본 원칙 승인
- **이주 및 강제이주에 대한 국제 협력** 지속



**368억 유로 :**

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파트너 국가 지원에 투입된 "팀 유럽 (Team Europe)" 예산 규모



## 4 기후변화 및 환경

- **파리협정의**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.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, 2020년 말까지 2030 CO2 배출량 감축 목표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
- 환경, 해양, 생물다양성, 불법·비보고·비규제(IUU) 어업, 해양쓰레기 및 자원 효율성에 관한 G20 노력 지원
- EU의 **순환경제 접근방식**의 중요성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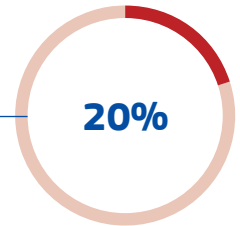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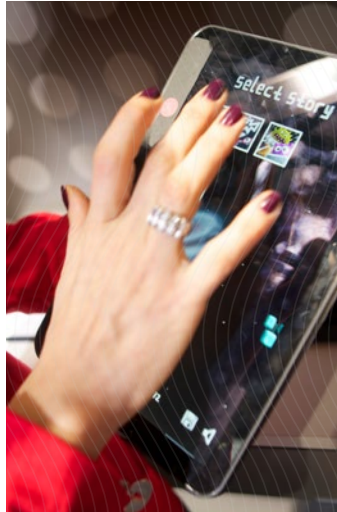


**55%**

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새로운 2030 목표

# 5 디지털 전환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청사진을 기초로 2021년 중반까지 공정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글로벌 방안 합의
-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보 이동 (**Data Free Flow with Trust**)으로 높은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가간 정보 교류 보장
- 신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혁신과 보안간 보조 맞출 수 있도록 노력
-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접근법 지향 및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



EU 회원국 경제회복 및 복원력 지원기금 중 '디지털 전환' 투입 비중

# 6 규정중심 세계 질서 및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

- 규정중심 세계 질서 및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확립 위해 노력
- 무역 긴장 완화, 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 진전, WTO 상소기구 위기 해결,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분야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 요구
- 전세계 교통로와 공급망이 붕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간 조율 지원
- 송금을 포함해 보다 안전하고, 저렴하며 효율적인 국경간 결제시스템 제공을 위해 **G20 국경간 결제 로드맵** 이행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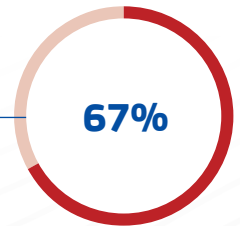


EU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최대 교역 파트너



# 7 인권, 사회적 권리 및 양성 평등 보장

- 전세계 공급망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(**decent work**)를 제공하고, 아동노동·강제노동,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 근절 위해 노력
-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한 민간분야 연합체(EMPOWER)를 통해 양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
- 효과적이며 탄력적인 교육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 도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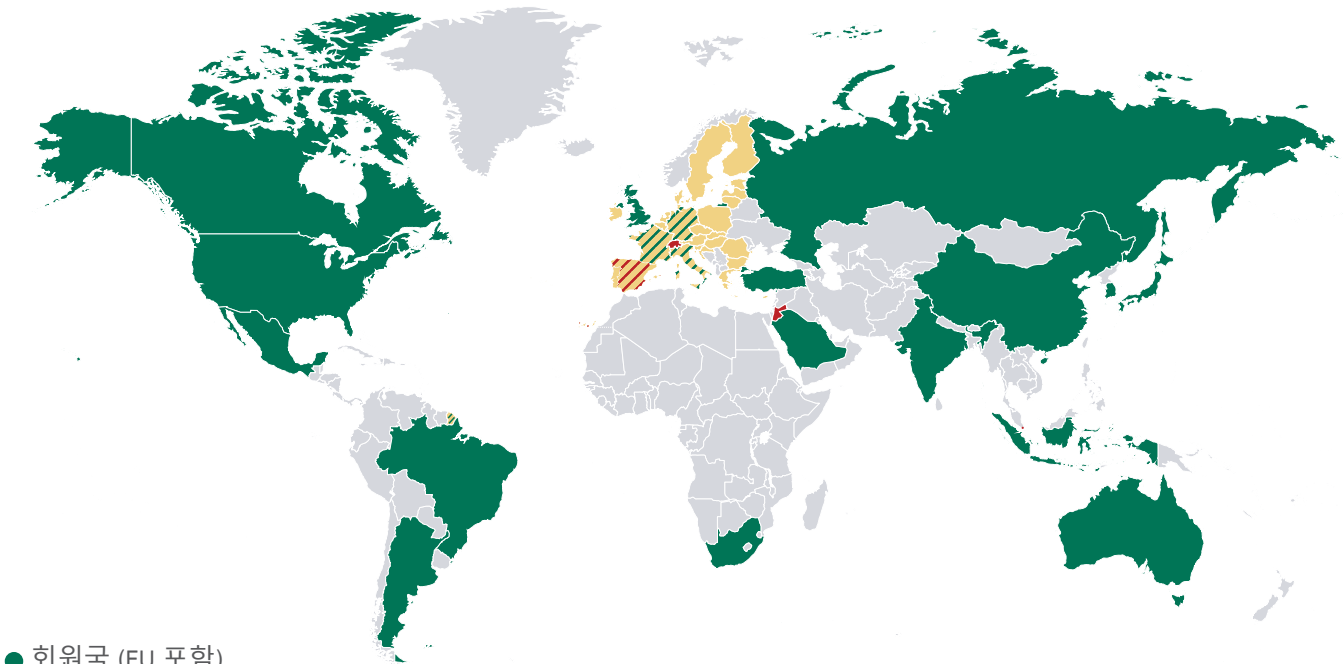
EU내 여성 고용률 (남성 고용률은 78%)

## G20 정상회의에서의 EU

EU는 회원국인 프랑스, 독일,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G20의 **정회원**이며, 스페인은 G20 회의의 영구 초청국(permanent guest invitee)이다. **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**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과 **샤를 미셸**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G20 정상회의에서 EU를 대표해 참석한다.

EU의 국내총생산(GDP)은 전세계 GDP의 16%로, 미국과 중국 다음 3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. EU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약7%를 차지하며, 이는 G20 정상회의 참여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은 인구 비중이다.

## G20 참여국



- 회원국 (EU 포함)
- 2020 G20 정상회의 초청국
- EU 회원국

출처: G20 (2020년)

과거부터 G20 업무에 기여해 온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, 금융안정위원회(FSB), 국제노동기구(ILO), 국제통화기금(IMF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유엔(UN), 세계은행그룹(WBG), 세계보건기구(WHO) 그리고 세계무역기구(WTO)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G20 정상회의에 초청된다.

올해는 아랍통화기금(AMF), 이슬람개발은행(IsDB), 아세안(ASEAN; 의장국 베트남), 아프리카연합(AU;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), 걸프협력회의(GCC; 의장국 아랍에미리트), 그리고 아프리카신개발파트너십(NEPAD; 의장국 르완다) 등 지역기구도 초청되었다.

© 유럽연합, 2020

본 문서는 출처 및 변경사항을 명시할 경우, 재사용이 가능하다. (저작자표시 4.0 국제 라이선스). 유럽연합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재사용 및 복제의 경우, 개별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직접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. 달리 명시되지 않은 모든 이미지는 유럽연합에 저작권이 있다.